

<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무임승차 경영자는 물러나라! ”

한국이 왜 IMF사태를 맞이했을까?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하나 든다면 아마도 지도층 또는 상류층으로 행세하는 자들의 무책임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지도층 또는 상류층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물려받는 대신 국난에 처했을 때에는 앞장서 난국을 타개하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용감하게 끌기해 적군을 물리치거나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는데 기여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귀족이나 지도층의 지위와 부를 인정함은 물론 존경해마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층이나 부유층은 어떠한가?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기는 커녕 군에 입대하지 않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가리지 않음은 물론, 국난이 닥쳤을 때에는 나홀로 「잘먹고 잘살기」 위해 해외도피에 여념이 없고 달러를 빼돌리기에 열중이다. 국민의 적이요, 지탄의 대상인 것이다.

이것은 재벌총수의 아들 가운데 55.8%가 병역을 면제받아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병역면제율 8.2%보다 7배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 증명해주고 있다. 30대 재벌 총수의 아들 52명 중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34명이고 그중 55.8%인 19명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았고, 면제사유는 장기유학이 8명, 건강이상 7명, 외국시민권 소지 4명이었다.

화학재벌 중에서는 SK 회장의 장남(37)과 차남(34), 효성 회장의 장남(31)이 모두 시력이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현대그룹 후계회장의 아들(27)은 수술후유증으로,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29)을 비롯 대림그룹 회장의 장남(30)과 차남(29), 한솔그룹 오너(고문)의 장남(48)과 3남(43)은 허리디스크로, 새한 회장의 장남(35)과 차남(34)도 건강상의 문제로, 롯데그룹 회장의 두 아들(44, 43세)은 일본 국적을 이유로 병역의무에서 면제됐다.

일반국민의 92%가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는데 재벌총수의 아들들은 절반 이상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이다. 타당한 경우도 있겠으나, 재벌오너 아들의 병역면제율이 보통보다 7배가 넘는 데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러한 무책임한 이들이 대기업을 물려받아 경영에 나선다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회사를 말아먹고 국가를 부도위기로 몰고갈 것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오늘의 IMF도 재벌2세들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경영에서 연유한 바 지대함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터이다.

따라서 재벌총수의 아들이라는 명분만을 가지고 대기업을 떠맡고,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회사를 말아먹는 것은 두번째이고, 또다른 IMF를 불러올 것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화학재벌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현대석유화학은 88년 석유화학사업 참여를 선언한 이후 92년 제1 NCC를 가동했고, 98년 제2 NCC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에틸렌 생산능력이 100만톤에 달하고 있다. 석유화학이 아니라 화학의 「화」자도 모르는 자들이 사업참여를 선언한 지 10년만에, 공장가동에 들어간지 6년만에 100만톤을 생산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조카인 정몽혁씨가 부사장과 사장을 맡으면서 벌어진 사태이다. 물론 이현태 전회장의 「막가파」식 경영이 화근이지만 이에 동조하고 일을 벌인 것은 정몽혁씨의 무능과 무책임의 소산일 것이다. 그 결과 부채 3조5000억원(?)의 거대 부실덩어리를 만들었고, IMF를 불러와 국가를 몽땅 말아먹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

SK도 마찬가지이다. 최태원씨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느날 갑자기 상무자리에 앉더니 98년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실질적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SK는 어떠한 회사이고, 최태원씨는 누구인가. SK는 대한석유공사로 출발해 30여년동안 온갖 특혜와 독과점을 통해 매출액 10조원대의 거대회사로 발돋움한 「흙혈귀」 같은 존재이고, 최태원씨는 IMF를 불러온 재벌집단의 모임체 전경련 최종현 회장의 아들이면서 반란군 부두목 노태우의 사위이고,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해 한국을 웃음거리로 만든 장본인이 아니고 그 무엇이던가.

화학저널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무임승차 2세 경영진을 조속히 정리해고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